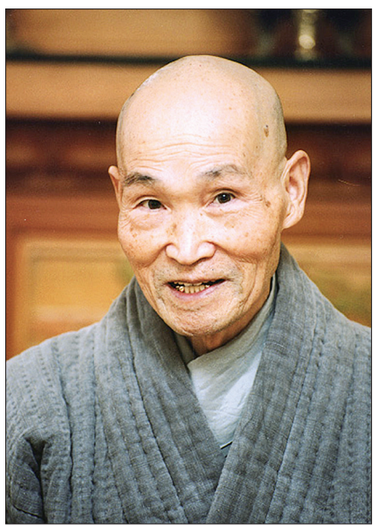
청화 대종사 가르침 디지털로 집대성

동국대 불교학술원·벽산무주회
육성법문, 원고 등 2만2000건
웹 활용 위한 메타데이터 제작
"청화 스님 발자취 잘 담을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염불선을 주창한 선지식 청화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벽산무주회는 7월 7일 '청화 대종사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을 개최했다. 사진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왼쪽)과 벽산무주회 부의장 무상 스님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염불선 수행과 이론을 체계화한 선지식 무주 청화(無住淸華, 1923~2003) 대종사의 가르침이 아카이브로 구축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7월 7일 불교학술원장실에서 벽산무주회(문장 용타 스님)와 '청화 대종사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화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으로, 염불선 수행의 이론적 체계를 세워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며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 스님은 1985년부터 태안사에서 3년 결사 묵언정진을 했으며, 1992년부터 미국 삼보사에서 수행하며 3년결사 등을 통해 해외 포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청화 대종사 아카이브 사업'은 박인석 불교학술원 K-Buddhism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 성과는 불교학술원이 운영하는 '한국불교문화포털'의 '현대 고승' 테마에 등재해 내년 초 서비스할 예정이다. 벽산무주회가 보유하고 있는 청화 스님의 친필 원고, 육성 법문, 비디오 자료, 포교 교재 등 총 2만2000여 건, 2.7TB 상당의 디지털 유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웹 서비스 환경에 맞도록 표준 서비스 포맷으로 변환할 계획이다. 향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목록과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단의 목표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을 통해 청화 스님의 생애·수행·포교·사상 등 주제별 12항목 내외의 원고를 집필하는 등 학술적 고증도 진행된다. 원고는 배광식 청화사상연구회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을 비롯한 청화사상연구회 임원진이 집필해 대종사의 수행자로서 진면목과 깊은 수행의 경지를 밝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대종사의 행적과 수행처, 생생한 가르침을 담은 자료를 엄선해 지리정보(GIS)를 구축하면서, 수행의 발자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불국토문화지도에 연동시킬 계획이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조계종 호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화 스님의 청정한 수행과 삶의 발자취를 잘 담아서 한국 전통 수행의 본질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학술원의 벽산무주회가 보유한 디지털 자료를 잘 정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소중한 수행 전통과 문화를 널리 보급해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장 용타 스님을 대신해 업무협약에 참석한 벽산무주회의 부의장 무상 스님은 "부처님 열반 후 가섭 존자가 나서서 경과 율을 결집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부처님이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세계 1등 모범 수행자였던 청화 스님의 가르침이 아카이브화돼 세세손손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청화 스님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문중 사업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국내 전문 학자들을 통한 스님의 평가와 자료 결집은 전 세계인들에게 공유·보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수행의 길로, 출가의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명원 스님, 성륜사 주지 주원 스님, 청화기념관장 정헌 스님, 배광식 청화사상연구회장, 박경준 연구위원 등이 함께했다. 벽산무주회는 사업기금 5000만원을 불교학술원에 전달했다.

현재 전남 무안군 혜운사에 청화 대종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으며, 문도회인 벽산무주회는 대종사의 사상과 수행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해 청화사상연구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소외됐던 부불전·요사채 '보물' 지정

가평 현등사 극락전 등 6건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등 4건
"불교문화유산 관심 계기 기대"

조선 중후기에 조성된 부불전과 요사채들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가평 현등사 극락전 등 부불전 6건과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등 요사채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부불전은 부처·보살을 모신 중심불전과 이격돼 건립된 법당으로 나한전, 영산전, 원통전, 비로전 등이 있다. 요사채는 스님들이 거주하는 전각을 의미한다. 그간 부불전과 요사채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았지만 불전과 석불, 석탑 등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불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부불전과 요사채에 대한 가치조사와 발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10건의 부불전·요사채를 보물로 지정하게 됐다.



가평 현등사 극락전.



익산 숭림사 정혜원.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부불전은 △가평 현등사 극락전 △괴산 각연사 비로전 △고창 선운사 영산전 △순천 선암사 원통전 △순천 송광사 응진당 △경주 기림사 응진전이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요사채로는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청양 장곡사 설선당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익산 숭림사 정혜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유산청은 "보물로 지정된 부불전과 요사채는 조선 중후기에 걸쳐 건립 및 중건된 것"이라며 "부불전은 조선 후기 전통목조건축의 양식적 특징과 기법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고, 요사채 역시 사찰의 수행 및 생활공간으로 건립돼 시대에 따른 생활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불전·요사채 10건의 보물 지정에 따라 향후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하며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사찰 부불전과 요사채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 관리단체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신안사 대광전'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 7월 8일 지정예고
16세기 건립…다포계 맞배지붕

조선 중기에 조성된 불전(佛殿)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금산 신안사 대광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산 신안사 대광전의 건립연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었으나 2007년 해체수리 공사 시 발견한 상량문을 통해 1638년 중창과 1840년 중수된 것이 확인됐다. 2023년 주요 부재에 대한 연륜연대 분석에서 1583년 부재가 다수 확인돼 대광전이 16세기에 최초로 건립된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대광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로, 맞배지붕이면서도 측면과 모서리에 공포를 배치한 게 특징이다. 또한 공포의 구성과 장식 요소 등은 대광전의 최초 건립시기인 16세기의 건축적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대광전 부재를 보면 일부 기둥에서 약간의 배흘림이 보이고, 기둥의 높이가 양 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귀솟음 형태로 만든 점, 창방과 보 등의 부재에서 소매걷이 기법이 보이는 점 등은 고식(古式)기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 가구 구조에서도 독특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어간은 대들보를 놓고 그 위에 별도의 동자기둥이 중보를 받치는 형식으로, 이는 주로 팔작지붕 건물에서 나타난다. 반면, 어간의 좌우 칸인 협칸은 내부의 높은 기둥[高柱]이 대들보 위의 중보까지 연결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한 건물 내에 서로 다른 두 방식이 혼용돼 있다.

국가유산청은 "여러 차례의 보수를 거쳤음에도 최초 건립된 당시의 부재와 치목기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금산 신안사 대광전.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칼라연등



태양광 칼라 미니등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소원성취등/정원등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